조계종·현대차 GBC건립 첫 대화, 소통은 없었다

3월 30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서 갈등 증폭

조계종 "환경평가 부실, 협의체 구성"

현대차 "법적 하자 없다" 강행 의지

전문가 "형식절차 불과, 공동조사해야"



이병인 부산대 교수(사진 오른쪽)가 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현대차 측(사진 왼쪽)이 곤혹스러운 듯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봉은사 인근 현대차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건립을 두고 조계종과 현대차의 첫 대화가 이뤄진 가운데 봉은사 문화재 영향평가 시행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현대차 측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2차 공청회 등 시민들의 요구에도 현대차가 강행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조계종 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대책위(공동위원장 지현·원명, 이하 봉은사 대책위)는 3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문화센터에서 열린 현대차신사옥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참석해 현대차 그룹 측과 사업 발표 후 2년 만의 첫 공식대화를 진행했다.

그동안 현대차 그룹은 105층에 달하는 GBC 건립에 대한 조계종의 각종 문제제기에도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청회서는 이중열 현대차 그룹 상무가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조계종 측을 대표해 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건립계획에는 1천년간 강남 중요 랜드마크였던 봉은사의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역사문화 및 전통문화에 대한 사전검증 및 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현대차 용역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만 유지하고 있다. 환경실측도 단기간 진행됐으며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공동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발표를 맡은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현대차 용역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홍 교수는 "보고서에서 실측조사에 활용한 ENVI-MET 모델은 실제 온도보다 7~13도 더 낮게 측정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런 모델을 쓰고서도 5월 2일 28.75도로 측정됐다. 온도가 1도가 더 올라가면 환경이 크게 변화한다. GBC건립으로 인한 온도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평가 초안에는 GBC건립 후 늘어날 차량 오염물질 적용구간도 300m로 잡았으며, 이마저도 디젤 승용차 등을 포함한 승용차의 PM수치는 0으로 계산했다. 적용구간을 최소 2km구간으로 넓히는 등 정확한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업체 대표인 윤주열 대표이사는 "본안에는 지적부분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전해준 봉은사대책위 팀장은 "오늘 지적된 부분의 본안 반영 및 이후 시민들의 문제제기 반영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과정이 없지 않느냐"며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실측조사를 진행하고, 2차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또 봉은사 문화재에 대한 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열 현대차 상무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초안 공청회는 본안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된다. 오늘 의견은 본안에 반영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협의체 구성 및 2차 공청회 개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어 이 상무는 봉은사 문화재 영향평가에 대해 "봉은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심사찰이며 일반시민 등이 찾기 쉽고 친근한 사찰인 것을 알고 있다. 강남 도심에 있기에 제한이 있는 듯하다. 아셈타워나 인터콘티넨탈 호텔, 지하철 9호선 공사 당시에도 문화재 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GBC타워와는 500m 넘게 떨어져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봉은사대책위 측은 이날 공청회에 대해 "법적인 부분에 문제없다는 현대차 측의 입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이 결여돼 있다. 급속으로 진행 중인 초대형 개발은 정경유착의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누락 및 부실에 대한 공동조사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4월 20일 '현대차 신사옥 초고층 초대형 개발에 대한 진단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과제'를 주제로 자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도산 스님 "직선제 추진, 10번이고 한다"

3월 24일 기자회견서…4월 7일 종회서 도입 결정

종회에 종법 개정 요청
임기 내 도입 지속 추진
"선출 시 즉각 퇴임할 것"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주제로 한 태고종 중앙종회 제128회 임시회가 4월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사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내 강력 추진 방침을 천명했다.

도산 스님은 3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린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지방종무원장은 물론, 원로 스님들 모두 직선제 도입을 찬성한 상태"라며 "4월 7일 열리는 임시중앙종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종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발의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승랍 5년 및 법계 선덕 이상 모든 종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선거공영제를 통해 후보자 합동정견 발표를 진행해 개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중앙의 선거장에서 전 종도가 모여 투표하며 일괄 개표한다.

도산 스님은 "선거권자는 약 23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태고종도가 한자리에 모여 종단 대표자를 선출하면 종단 위상을 높이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종단 대표자가 선출되면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도 했다.

스님은 "자격 조건에 의무금 납부 등이 있어 종단재정 확보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직선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 집행부가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도입 시 불출마 입장을 밝힌 스님은 끝으로 "애종심을 높이고 종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 만큼 자리에 연연 않고 적극 추진하겠다"며 "부결된다면 10번이고 간에 다시 발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계 논문작성 규정 통일한다

14개 불교학술단체, 회동서 표준안 마련 합의

염두 두지 않은 다른 학회지
투고 시 다시 작성해 '불편'
표준안 마련 논문 작성 통일
"후학 편의 위해 미루지 말자"
학술단체연합회 발족도 추진

불교학계에는 10여 개 이상의 학술단체가 있고, 이들은 자신들만의 학회지를 가진다. 학회지에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학회지 규정을 따른다. 하지만 학회지마다 규정이 달라 처음 준비하던 곳이 아닌 다른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하기 위해서는 다시 규정에 맞춰 고쳐 쓰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불교학 단체들이 학회지 논문작성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불교학회장 성운 스님, 이평래 대행선연구원장,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등 주요 불교학술단체 대표자들은 3월 24일 회동을 갖고, 학회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논문작성 원칙을 통일키로 합의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문작성 규정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학회마다 전통과 원칙이 있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날 학술단체 대표들은 논의 끝에 "당장 혼선과 불편이 있지만, 후학의 편의를 위해 더 미룰 일이 아니다"면서 "논문작성 원칙과 관련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일률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자"고 합의했다.

합의 동참한 불교학 단체는 △대각사상연구원 △대행선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동국대(경주) 불교사회문화연구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만해학회 △보조사상연구원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소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인도철학회 △정토학회 △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학회 등 14개 단체다. 불교학연구회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을 제외하면 주요 불교학 단체들은 대부분 합의에 동참한 것이다.

이들 불교학 단체들은 논문작성 원칙과 관련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호스님(한국불교학회), 김성철 교수(동국대 경주캠 불교사회문화연구원), 김광식 교수(대각사상연구원·만해학회), 이기운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호귀 교수(한국선학회) 등을 실무추진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국불교연구원의 신선혜, 최지연 박사는 간사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실무추진원회는 향후 표준안을 제안하고 여러 학회의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무위 관계자는 "논문 작성의 간편성과 자료를 찾는 독자의 편의성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교학계의 여러 논문작성원칙 외에도 사학계, 철학계 등 다른 학문분야의 논문작성법과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논문 작성 매뉴얼 등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 대표자들은 '한국불교학술단체연합회' 발족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연합회는 불교학 연구와 관련된 한국 학술단체들이 세미나 일정과 정보 등을 교류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학술대회 개최나 각 학회 학술대회 홍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영축총림 방장 대행 수좌 성파 스님 맡아

주지 영배 스님, 통도사서 발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가 3월 25일 수좌 성파 스님〈사진〉을 방장 직무대행으로 공식 발표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25일 오전 원통방에서 "성파 스님을 방장대행으로 모실 것"을 발표하고 성파 스님의 주석처인 서운암을 방문했다. 이후 3배하며 성파 스님께 "앞으로 성심껏 보필하고 모실 것이다"고 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파 스님은 26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노천문도회의 한 스님은 "발표 전에 원명 스님과 주지 영배 스님 그리고 월파 스님 등 원로 어른스님들과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파 스님을 방장 직무대행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도사 방장으로 정식 추대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어서 안정화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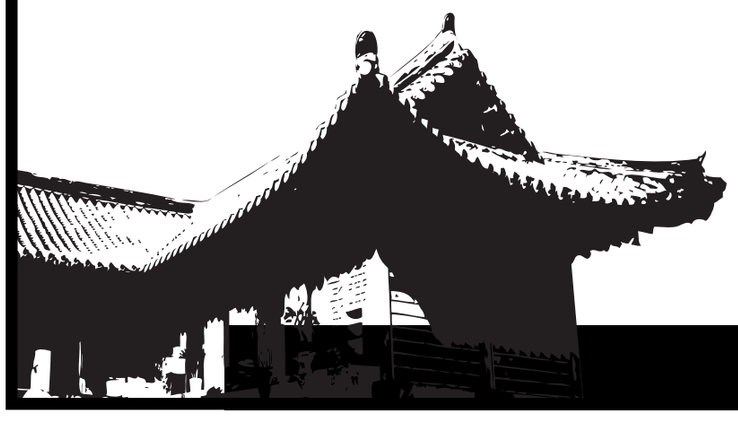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